

진안군, 충남 금산군과 손 잡았다 겨울철 복지 안전망 강화 총력

상생 발전 위한 우호협정 체결... 정부 정책·지방소멸 공동 대응 등 협력키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은 11일 금산군청에서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춘성 진안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동창욱 진안군의회의장, 김기운 금산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두 지자체는 △정부 정책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 행정체계 강화, △관광, 역사, 문화, 지역 공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고,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관계 유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진안군과 금산군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많음을 상호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 그동안 협력 방향에 대한 실무 간담회 및 축제, 지역방문, 고향사랑기부제 상 호기부 등 다양한 사전교류 활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은 11일 금산군청에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금산과 진안은 수변, 산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공통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군과 진안군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소중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두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더 큰 발전을 이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촌 크리에이티브’ 통해 활력 도모

지원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크리에이티브(CREATOUR)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부터 홍보와 운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지원받는다.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여행 전문가, 청년 사업가 등과 협업을 기존 농촌 관광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에 맞는 농촌 관광 상품을 새롭게 개발,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자생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무주군은 ‘무주1614’라는 브랜드명을 활용해 농촌체험마을을 6개소(솔다박, 두문, 앞섬 등)와 6차 인종업체 3개소(아이엠무주, 토마토머리, 황금산삼), 지난해에 이어 지역관광자원(덕유산, 적상산, 태권도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과 지역축제(안성낙화

놀이 낙화봉만들기, 무주반딧불신비탐사 등) 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 살아보기(4박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상품화해 비수기 영업 및 방문객 계층 다양화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무주군 농촌 지역에 많은 체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 농촌 크리에이티브 ‘사업 비전 부문’에서 무주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무주군이 가진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홍삼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개관

진안군은 11일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이하 다목적복합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관식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욱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내 위치한 다목적복합센터(진안읍 홍삼한방로 10)는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7억원(도비 25억원, 군비 32억원)을 투입해 지난 8월 준공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 근로자 식당, 2층 목욕탕, 3층 근로자 기숙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은 (사)홍삼한방농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 관리 할 예정이다.

군은 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복지 편의 및 상생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내년 3월까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추진

장수군은 한파와 난방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생존 위협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겨울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방문해 난방비와 방한용품(담요, 의류, 난방기 등)을 긴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맞춤형

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각 마을 경로당에 특별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복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세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의 후원을 독려하며 푸드뱅크와 연계해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행안부 장관상 수상

장수군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최한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전국 75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75개 지자체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장수군과 12개 지자체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군은 ‘빨간맛으로 사람을 잇다, 장수 만남의 광장레드하우스’ 사례를 농산유통과 노경미 팀장이 발표했고, 이 공간이 도시민과 지역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4월 개장한 ‘장수 만남의 광장’은 장수군을 대표하는 레드푸드 특산



물을 브랜드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힐링 공간으로서 6개월 만에 7만여 명이 찾아 군의 새로운 체험형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장수군의 주요 레드푸드인 한우와 사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구성돼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빨간 맛’으로 엮어낸 것이 인상적이라는 평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제22기 농업인대학 수료식’ 열려

장수군은 11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22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수료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 기간 중 자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운식 교육생에게 공로상을 전달하고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박정식, 박정환 교육생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2024년 장수군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 개강해 11월까지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생 147명을 대상



으로 사과반, 포도반, 두릅반 총 3개 과정의 교육을 진행했고,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 등 총 27회, 11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장수농업을 이끌어 나갈 80명의 수료생을 양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 추진

진안군은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진안고원 치유숲을 관내 우수집단급식소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급식소의 시설, 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식품 보관과 운송 등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지원해 식중독 예방 및 급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이번에 선정된 진안고원 치유숲은 철저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하여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군은 진안고원 치유숲에 현관을 전달하고, 식중독 예방 물품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기여와 지역사회 신뢰 강화에도 더욱 힘을 보태겠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민·관·공 협의체 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10일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제3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진안지부를 비롯해 8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진안군(官)과 전북 신용보증재단(公)이 함께 회의를 진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계획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성택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공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